

〈2018년 11월 21일 수요일 새벽, 주 말씀〉

1. 〈산 자〉만이 미리 하고, ‘늡기 전’ 에 제때 한다. 〈죽은 자〉는 할 수 없다. - 이는 〈육신〉이 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신앙적으로 산 자, 정신적으로 산 자〉를 말한다.
2. 〈부활〉도 분야별로 있다. 〈육신의 부활〉은 ‘하나’ 밖에 없다. 〈육신〉이 숨을 쉬고 살아나는 것이다. 그러나 〈신앙의 부활, 영적인 부활, 정신의 부활, 생활의 부활〉은 엄청나게 많다. 분야별로 부활돼서 살아나야 된다.
3. 가령 〈새벽을 깨우는 데〉 있어서 새벽을 깨우지 못한다면, ‘새벽 분야’ 는 죽은 자와 같다. 신앙적으로 볼 때, ‘생활’ 이 부활되지 못한 것이다.
4. 〈육적 부활〉은 숨만 쉬고 눈만 뜨면 살아난 것으로 보지만, 〈영적 부활〉은 그 정도 가지고 살아났다고 하지 않는다. 완전하게 뛰고 달려야 살아났다고 본다.
5. 〈산 자〉는 더 이상적으로 하고, 더 잘한다.
6. 〈많이 부활된 자〉는 많이 얻고 누린다.
7. 여러 가지로 부활돼야 많은 보람을 느낀다.
8. 자기 재능, 자기 능력을 다 부활시켜라.

9. 해 봐야 부활된다.

10. <육적 부활>은 ‘한 가지’ 라면, <영적 부활>은 분야별로 ‘수백 가지, 수천 가지, 수만 가지’ 가 있다.

11. 아직까지도 자기 분야에서 부활되지 못한 자가 있다. 무엇이 부활되지 못했는지는 극적으로 뛰어 봐야 안다.

12. <건강>에도 분야가 많다. 가령 간이 안 좋으면, 그로 인해 다른 지체들도 죽는다. 어떤 사람은 ‘암’ 하나 때문에 30년, 50년 더 못 살고 죽기도 한다. 그러니 얼마나 억울하냐. 그래서 <건강>도 100% 다 부활시켜야 된다. 위 부활, 대장 부활, 뇌 부활, 청각 부활 등이다.

13. <뇌>가 무감각하면 죽어 있는 것이다. 총명하게, 확실하게, 분명하게, 완벽하게 부활시켜야 된다.

14. <부활>은 ‘말씀’ 으로 된다.

15. <에스겔 골짜기>에서도 하나님은 ‘말씀’ 으로 부활시키셨다.

16. <에스겔 골짜기의 부활>은 ‘영적 부활’ 이다. <죽은 군인들의 육신>이 부활된 것이 아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이 살아나고, 정신이 살아나고, 행위가 살아난 것이다. 선지자 에스겔이 영계에서 본 대로 외치니까, 그 말씀으로 인해 이스라엘 민족이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살아나고 행위가 살아났다. 역시 <영적 부활, 신앙적 부활>이었다.

17. <에스겔 골짜기의 부활>이 ‘육적 부활’이 아니듯이 <예수님의 부활>도 ‘육적 부활’이 아니다. <영적 부활>이다.

18. 기독교는 <예수님의 부활>을 두고 절대 ‘육신 부활’이라고 주장하고 가르친다. 왜? <육신 부활>이 아니면, 예수님의 육신이 죽었으니 예수님의 재림도 없다는 것이다. 육신이 부활해서 하늘로 올라갔으니 살아서 재림하는 것이라고 한다. 예수님의 육신 부활이 그들의 소망이니, 이같이 가르친다.<핵>을 모르니, ‘전체’를 모른다.

19. 사도 바울은 “네가 뿌리는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한다. 육의 몸이 있고 영의 몸이 있다.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난다.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난다.” 하였다. 곧 예수님의 육신은 죽었고, 영이 살았다는 말이다. 사도 바울은 시작부터 끝까지 항상 예수님의 영의 부활을 다루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의 육신을 본 게 아니라 그 영을 보았다. 살았을 때 못 보고 죽고 나서 만났다. 성경의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보면, ‘10년 전, 30년 전, 50년 전에 죽은 사람이 살아난 역사’가 단 하나도 없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죽은 사람들을 부활시킨다는 것도 ‘영적 부활’이다. <육적 부활>이 아니다. <예수님의 육신>은 지구가 없어질 때까지 안 온다.

20. <영적 부활>이라야 영원하고, 천국에 대한 희망이 ‘실상’ 이 되어 누리게 된다.

21. 하나님은 시대마다 한 사람을 보내시어 그를 쓰고 역사하신다. <새 시대>가 되면 ‘예수님의 육신’ 이 오는 것이 아니다. <영>이 와서 그 시대 하나님이 보낸 자에게 임한다. ‘성자’가 와서 그를 통해 행하신다. <성자>는 ‘예수님의 영’ 이 아니다. 삼위일체 중 한 분이 지구의 구원을 맡았는데, 그분이 곧 ‘성자’ 다. <성자>가 오셔서 휴거 역사를 다 이루고 가시면서, <땅의 성자>에게 “내 일을 네게 맡기고 간다.” 하고 하늘 보좌로 가셨다. 그리고 나서 지금은 ‘성령’ 께서 오셔서 좌정하고 계신다. 왜? 사람은 ‘육신’ 을 가지고 있으니 마음을 못 놓으시고, 혹시 사탄이 멸할까 봐 오셔서 역사해 주고 계신다. 성령님은 늘 말씀하시기를 “나를 두고 ‘영의 엄마’ 로만 생각하지 말아라. <여성 신>으로서 전지전능하고, 무소부재의 존재자다. 하나님이 나의 말을 듣고 나와 같이 한다. 혹시 사탄이 쫓아올까 걱정 말고 해라. <성령의 법>에 의해 다 차단된다. 내가 있으면 됐다.” 하셨다.

◎ 수요일예배 말씀까지 다 전해 줬습니다.